빛가람 이전기관-지역민, 음악으로 '화합 한마당'

동아리 콘서트에 500여명 참여…플리마켓도 운영
윤병태 시장 "소중한 문화 교류의 장…지역 상생"

나주시가 빛가람호수공원에서 진행한 이전공공기관 동아리 콘서트가 시민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음악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4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빛가람호수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제24회 이전공공기관 동아리 콘서트'에 지역 주민과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여해 초여름 밤을 함께 즐겼다.

'초여름 밤, 빛가람을 잇는 뜨거운 비트'를 주제로 열린 이번 콘서트에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 연합 음악동아리 등 12개 팀이 참가해 최신 K-팝부터 대중가요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무대에는 HQ SOUND를 비롯해 아재밴드(한국전력공사), 헬리오톤즈, 악기누리, 사운드랩(한전KDN), 하비스트(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KRCB(한국농어촌공사), TP밴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RedPost(우정정보관리원), 출력해방(한국전력거래소), 퇴근후밴드, 남윤홍밴드(지역연합) 등 각 기관과 지역을 대표하는 동아리들이 참여해 개성과 열정이 담긴 공연을 펼쳤다.

참가 동아리들은 수준 높은 연주와 노래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공연장을 뜨겁게 달궜고 관람객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로 화답하며 축제의 분위기를 더했다.

행사장에서는 공연과 함께 플리마켓도 운영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수제 먹거리와 지역 특산품, 공예·생활용품, 액세서리 등 다양한 상품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2016년부터 연중 2~3회 열리고 있는 이전공공기관 동아리 콘서트는 지역 주민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는 대표 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전공공기관 동아리 콘서트는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문화 교류의 장으로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이전공공기관의 상생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혁신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함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나주시가 최근 빛가람호수공원에서 '제24회 이전공공기관 동아리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 음악으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마무리했다. 사진제공=나주시청

영광 연암제에 AI 로봇 설치…정수 운영 효율화

한국환경공단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 최종 선정
총 106억원 지원…안정적 맑은물 공급 기반 구축

영광군은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한 '2026년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 AI 기반 수질관리 로봇을 활용한 원수 수질 측정 자동화를 추진한다.

최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과 안전선포식을 통해 사업 추진을 알린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은 한국환경공단이 우수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 환경기업과 환경설비 수요기관을 연결해 실제 현장에서 기술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사업에는 총 106억원 규모가 지원되며, 이 가운데 10억원이 영광군 원수 수질 측정 실증사업에 투입된다. 이번 사업에는 참여기업 에코피스가 함께한다.

그동안 영광군은 수질을 수동으로 측정해 왔으나,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에코피스가 개발한 AI 기반 수질관리 로봇을 연암제에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계절별 수온 변화 등에 따른 수질 변동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과 수질 데이터 분석 체계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약품 투입 조절 등 정수 운영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군은 이번 실증사업이 원수 관리 자동화와 함께 보다 안정적인 맑은물 공급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정수시설 운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수시설 운영 효율을 높여 군민들에게 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영광군이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과 안전선포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제공=영광군청

영암, 민선 9기 공약 실행 행정 절차 돌입

군정 연속성 살려 실무 검토 착수…행정 공백 최소화

영암군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다.

14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낭산실에서 우승희 군수 주재로 '민선 9기 공약사항 추진방향 회의'를 열고 공약별 실행 방안과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군정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선 9기 주요 공약을 실행계획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별도의 인수위원회 절차 없이 실무 부서를 중심으로 공약 검토에 들어가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민선 9기 핵심 과제인 '영암형 기본사회 5대 공약' 추진 방향이 중점적으로 논의 됐다.

주요내용은 영암형 농촌기본소득(월 15만원) 및 에너지 기본소득 추진, 영암형 통합돌봄 전국화 모델 구축, 영암형 공공은행 설립(농지·빈집·우리아이자립펀드 통합 설계), 청년 등록금·주거·일자리 책임제(대학 전액 납부금·주택 300호 지원 등), 영암형 통합교통서비스 구축(버스·택시·교통약자 콜택시 연계) 등이다.

이와 함께 군은 민선 9기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중점 사업에 대한 실무 검토도 강화하고 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기존 행정의 연속성을 활용해 시행착오 없이 민선 9기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공약은 군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구체화해 군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실무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 9기 공약사항 실행 계획을 보완·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주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과 함께 군민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해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화순군 힐링 맨발걷기 행사
내일 오전 10시 너릿재 옛길

화순군은 올바른 걷기 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위해 16일 오전 10시부터 너릿재 옛길에서 '건강 한걸음, 화순 힐링 맨발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최근 자연과 교감하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맨발 걷기'를 통해 군민들에게 올바른 걷기 방법을 알리고,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가 열리는 '너릿재 옛길 맨발걷기길'은 울창한 숲과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걷기 코스는 편도 약 1.3㎞ 구간으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완주자 200명에게는 선착순으로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된다.

당일 현장에서는 맨발걷기운동본부 화순군지회 소속의 걷기 지도자가 올바른 걷기 자세에 대한 사전 교육을 맡아 진행한다.

특히 개인별 걸음걸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보행 자세 측정 장비를 활용해 참가자의 보행 상태를 진단하고, 결과에 따른 맞춤형 보행 상담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성분 측정 및 건강상담, 금연 상담 등 건강 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건강홍보관'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건강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박미라 화순군 보건소장은 "걷기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 중 하나이며, 바른 자세로 걷는 습관은 만성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면서 "이번 맨발 걷기 행사를 통해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담양군 담주리 다미담예술구에서 열린 '2026 생활문화축제 월:담' 모습. 사진제공=담양군청

담양 다미담예술구 '월담'에 5만명 발길

영화 상영 무비나잇 등 문화·상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담양군문화재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주말 담양군 담주리 다미담예술구에서 열린 '2026 생활문화축제 월:담'을 개최했다.

올해 축제는 '월담개화(月潭開花) : 일상을 넘어 피어나는 문화'를 주제로 문화 프로그램과 상권 연계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했으며, 사물인터넷(IoT) 센서 계측 기준 5만1890명이 다미담예술구를 찾았다.

축제는 뮤지컬 형식의 개막 공연 '웰컴 투 월담2026'을 시작으로 전시 프로그램 '월담화랑', 다미담예술구 예술가와 상인이 참여한 이야기 공연 '담장 토크', 거리공연 '무드살롱', 토요일 저녁 흑백영화 상영 프로그램 '무비나잇' 등으로 꾸려졌다.

상권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다미담예술구 내 상점과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점포가 참여했으며, 행사장에는 50개 플리마켓 부스가 마련돼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이와 함께 영수증 행사와 나비 찾기 행사를 통해 방문객이 다미담예술구 곳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새롭게 선보인 여행 프로그램 '월담투어'와 담양장터 연계 '반값마켓'도 운영됐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 관광, 상권을 잇는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다미담예술구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담양이 가진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

해남, 빈 점포 창업 임차료 지원 '상권 활력'

월 최대 50만원…도심 공동화·예비창업가 부담 완화

해남군은 해남읍 내 장기 공실 점포를 활용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빈 점포 창업 임차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상점가 공실 증가로 인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완화하고 예비창업가의 초기 정착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해남읍 내 빈 점포를 임차해 창업하는 경우, 신청 점포가 6개월 이상 빈 점포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빈 점포에 창업을 완료했거나 예비창업가의 경우 사업 선정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모집 규모는 4개소이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50만원의 임차료를 올해 12월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선정 후 임대차 계약서와 월 임차료 납부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창업가와 사업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 해 해남군청 농촌경제과 소상공인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추진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가점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는 서류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곡성,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자진철거·신고 운영

곡성군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군민과 방문객에게 돌려주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물로, 평상, 데크, 그늘막, 가설건축물, 경작지, 물건 적치, 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된다.

군은 계도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유예하고,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단 영업행위와 관련된 시설은 철거 기간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자발적인 정비에 응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지난 3~4월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을 조사해 원상복구와 정비를 진행 중이며, 하천구역 내 조사에서 누락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곡성=김유번 기자 hnnews1@